

# 전남도, 전국 최초 '정원 관광 프로그램' 선보인다

국립정원문화원 협력 수목원 등 77곳 지역·계절·테마별 코스...1천만명 목표 입장료 50% 지역화폐 지원 부담 낮춰

전남도가 정원관광 1천만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정원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정원·수목원·산림휴양 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계절별·테마별 코스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체류형 정원관광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진입 장벽으로 지적된 정원 입장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장료의 50%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와 정원 운영자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원 관광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 참여를 유도



전남도가 국립정원문화원과 협력해 지역 정원·수목원·산림휴양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정원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 왼쪽부터 구례 반야원과 해남 비원전경. <전남도 제공>

하고 관광객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하루 코스'와 남도를 구석구석 여행하는 '체류형 1박2일·2박3일 코스'로 나눠 운영한다.

'자율형 하루 코스'는 지역 민간 정원·수목원 3

5개소를 중심으로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원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가 10개소, 20개소, 35개소를 완주한 뒤 스탬프 투어북을 국립정원문화원에 제출하면 기념메달을 제공하고 2026 민간정원 페스타에도 초청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원·수목원에는 스탬프, 투어북, 정원 지도를 비치해 정원 여행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체류형 1박2일·2박3일 코스'는 정원이 아름다

운 봄·가을철과 휴가철에 총 19회 운영한다. 전문 정원해설사가 동행해 정원별 이야기와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품격 있는 정원 여행으로 진행 된다.

코스에는 호남 3대 별서정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로컬 맛집 등이 포함돼 정원 감상과 휴양, 미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정원 관광 참여 방법은 국립정원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율형 하루 코스는 참여 방법을 별도 안내하고, 체류형 코스는 모집 일정을 공지한 뒤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원문화원(061-380-1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남도는 생활 주변 곳곳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정원이 공존해 정원 관광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며 "정원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남도 정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원 관광 1천만명 시대를 전남이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도, 재해보험 가입 등 가축 폭염피해 예방대책 일제점검

전남도는 12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2주간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 상황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해 폭염으로 전남 229개 농가에서 37만마리의 돼지, 닭, 오리 등이 폐사했다. 피해액은 51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종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적기 공급과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와 재해보험 가입 실적 ▲사·군 공무원-축산농가 1대1 상담제 운영 현황 ▲가축 사양관리와 농가 행동요령 전파 여부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취약농가 374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17일까지 실시했다.

또한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31억원,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1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8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182억원을 지원,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덕구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가축 폭염 예방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광주형 청년갭이어' 참여자 30명 모집

내달 7일까지...19-39세 미취업 청년 1인 최대 140만원...진로 탐색 지원

광주시는 12일 "2026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오는 6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청년갭이어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을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최대 4인)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 신청은 모든 팀원이 각각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아르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프로젝트 계획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참여자 30명을 선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정된 참여자에게 1인 최대 140만원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며 팀은 팀원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숙박비, 교통비, 프로젝트 실행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원금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로·직무 탐색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7-9월 중 30일간 광주 외 국내 다른 지역에서 진로탐색형 또는 사회탐색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변은진 기자

### 6-3 지방선거 <5> Q&A

**Q 선거 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 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그 추천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선거 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A.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선거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합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19억3천700여만원입니다.

**Q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100% 보전,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50%를 보전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자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순해보험협회